



태국 10만명 수계의식 열려 태국 방콕 담마까야 사원의 담마까야 세티야(Dhammakaya Cetiya)광장에서 2월 6일 태국 남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는 수계의식이 단기불교인 부딕(But nak)행사가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태국 내 출가자 감소를 우려한 태국 승단과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태국 전 지역 340여 사찰에서 3만4862명의 출가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3월 8일까지 오후불식, 탁발수행 등을 하며 스님으로서 생활한다. 관련 기사 5면

조계사 문화공간으로...

조계종, 종단 4개년 계획 발표... 진행과정 매월 공개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2월 10일 제33대 집행부의 종단 4개년 발전계획 첫 월례브리핑을 열고 조계사 성역화 등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원담 스님은 "종단 위상과 1700년 한국불교문화의 상징이란 점에서 조계사를 성역화 해 불교전통문화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는 큰 윤곽이 구상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원장스님이 내달쯤 직접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지방사찰은 사찰환경이 잘 가꿔졌지만 외국인들이 방문 시 대부분 서울사찰, 그중 조계사를 둘러본다는 점에서 성역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역대 집행부에서 성역화를 추진했지만 자승 스님은 지역문화와 연계해 보다 큰 포맷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조계종 기획실과 주무부처인 서울시 문화부 등 서울시 5개부, 종로구청 등이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공개된 조계사 성역화 등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의 진행상황은 매월 공개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직할교구 인사사고과제도와 총본산 성역화 사업 등 불교 각계의 이해상충이 걸린 사업 진행 시 이를 종도들에게 알리고 '종단백년대계'란 대명제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원담 스님은 "현재 발전계획의 각 부서 간 업무분장이 이뤄진 상황으로 부서이기주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매월 전체회의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33대 집행부는 1/4분기동안 승가교육 개선·신도 교육 및 조직화·직할교구 주지인사고과·종단발전위원회·총본산 성역화·종단재정구조 합리화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승가교육개선 분야는 승가교육진흥용 종령이 제정돼 2월 5-8일 행사 임면교육이 시행됐다. 신도교육조직화 분야는 신도등록관련 법령 개정안이 3월 총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신도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2월 중 새 신도증 가맹사업장이 확대된다.

또 신도등록 실적을 주지인사고과에 반영토록하는 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승가복지 분야에서는 승가복지법안이 3월 8일 중앙총회에 상정 예정이며 국립공원제도 개선과 관련된 2월 24일 문화재사찰주지회의, 교구분사주지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단 재정구조합리화 및 화쟁위원회 설립은 근거법안 및 위원 위촉안 등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월 11일 종단발전위원회에서 총무원 4개 부처에서 각 2명의 종단발전위원이 위촉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원담 스님은 "이번 종단발전계획은 종법개정과 더불어 예산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장기 로드맵에 의해 객관화·양성화된 정책집행이 이뤄진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수시로 종도들과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봉원사 소유권 분규 57년 만에 해소

조계종 봉원사특위·봉원사, 법원의 토지 분할 조정안 수용

1954년 이후 57년간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규의 상징이었던 신촌 봉원사 소유권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조계종 중앙총회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직, 이하 봉원사특위)가 2월 8일 법원의 토지 분할 조정안을 수용한 데 이어, 태고종 봉원사도 9일 신중총회를 열고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정안 수용에는 두 종단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불교발전을 위해 불신과 반목을 버리고 화합하는 토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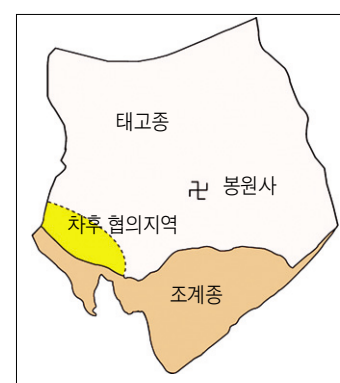
양 측의 조정안 수용은 태고종 봉원사 측이 3시간 여의 장고 끝에 조정안 수용을 결정하며 극적인 분규 종식을 이뤘다. 앞서 수용을 결정한 조계종 특위 회의 때와 달리 봉원사 50여 대중스님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은 "사중에는 '선사로부터 물려받은 사격을 축소할 수 없다'는 스님들이 많았지만 '타종교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봉원사 문제로 불교계와 종단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모였다. 태고종, 조계종을 떠나 한국 불교의 큰 틀에서 더 큰 걸음으로 불교 흥흥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봉원사특위 위원장 성직 스님은 조계종 특위의 수용결정 이후 "이번 신촌 봉원사 문제 합의를 시작으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측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도 "두 종단이 자비와 화합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조정안은 태고종이 99필지 13만 511㎡(3만9480평), 92필지 6만



575㎡(1만8324평)를 조계종 소유로 한다고 명시했다[그림]. 사찰 수행 환경을 유지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경내의 소유 토지에 대해 제3자에 매도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어 삼보장재의 유실을 막았다.

법원의 조정안은 15일까지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최종 확정된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조만간 합의

서 조인식을 갖고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계에서는 이번 봉원사 소유권 문제 합의를 바탕으로 조계종과 태고종 간 분규사찰 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종단 간 분규사찰은 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대구 흥천사, 서울 백련사, 성주암 등 10여 곳이다.

#신촌 봉원사 분규는...
신촌 봉원사는 '분규사찰' 중 대표적 사례이다. 2001년 11월 조계종이 봉원사 등기명의를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변경했고, 태고종이 등기말소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2005년 법원은 태고종의 봉원사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했지만 법적공방은 계속됐다. 결국 양 종단은 봉원사 소유권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3월 8일 두 종단 9인 대표가 대책위원회를 꾸려 협의를 진행해왔다.

"죄송하다" 강희락 경찰청장 사과 9일 자승 스님 예방 재발방지 약속

만취한 경관이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을 폭행한 사건이 강희락 경찰청장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월 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자승 스님은 "피해 당사자가(가해자들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종단도(지관 스님) 본인의 뜻을 존중하려 한다. 일반 시민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경찰에 의한) 폭행사건이(스님에게) 일어났다"며 우갈의 뜻을 표했다.

강희락 청장은 "수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지관 스님과 인연을 이어오

검찰 국정원 조사 중앙지검 밝혀

검찰이 조계사에서 개최 예정이던 시민단체 행사에 취소 압력을 행사한 국가정보원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교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가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과 직원 권모씨를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이에 앞선 3일 불교환경연대, 대불청,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9개 단체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4 새 연재-다구를 찾아서 ▶6 현장-길상사 ▶14 선지식-정현 스님 ▶8 인터뷰-법안 스님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규격: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정우불교예술원(구.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촉대,
- 연등전선 시공.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전기가 기준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산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正宇 불교 예술원(구.정심원) www.jeongwoo.info